

詩誌

# 종 소 리

제 102호

2025 년 4월 봄호

시지

# 종소리

102 호



2025 년 봄호

(102 호)

# 차 례

선생님의 시도 있어요?	진 승 원 (4)
입버릇	박 태 진 (7)
분회장의 주름살	심 달 야 (8)
승패 없는 운동회	채 덕 호 (10)
발길질	리 유 실 (12)

자 구 오 사 구 르 / 자 키 바 새 기 오 / 흥 구

빌어먹을	정 선 (14)
내게 조국은	류 혜 령 (16)
깊은 밤 기숙사에서	최 령 화 (18)
나를 찾는 아이들	오 지 유 (20)
대물림인양	김 성 순 (22)

독  
자  
란

괜찮다오	하 의 배 (23)
나란히	김 애 미 (26)
3 월 8 일 아침에	김 남 (28)
할배와 손녀의 교환 《메일》	허 옥 녀 (32)
와하하골프소조	김 성 철 (34)

자 나 오 사 나 르 / 자 키 보 쉐 가 오 / 중 나

래일 향해 꿈!	김 명 혜 (36)
새봄에 바라다	서 정 인 (38)
손녀 꿈, 할배 꿈	리 일 렬 (40)
나를 부르는 소리	양 금 녀 (42)
*후기*	(43)

## 선생님의 시도 있어요?

진 승 원

- 《〈불씨 24 호〉  
나왔습니다  
좋은 작품들입니다  
한권 천엔입니다》

문예동결성 65 닢  
문예발표의 날  
사람들 붐비는 장내에  
나의 소리가 울린다

5년만이라 좋아서  
공들인 보람이라 신이 나서  
작품집을 들고  
사람들속에 들어간다

- 선생님의 시도 있어요?  
- 네, 8편 실었습니다  
- 그럼...

눈매 가름한 녀성분이  
천엔짜리 한장 쥐여주셨다  
나를 아실가  
내가 열심스러워설가

구김새 하나없는  
뽀뽀한 천엔짜리가  
애쓰셨어요 잘 읽겠어요  
속삭이는데 했더구나

독자없는 시는  
그저 글줄일뿐이라 하던  
친구가 곁에서 빙글  
고개를 끄덕인다

《불씹니다》  
《24 흡니다》  
차츰 커가는  
기꺼운 소리에 답례인가

열권  
스무권  
손에 든 작품집을  
번지는 소리가 들린다

※ 《불씨》 ~ 1977 년부터 발행되어오는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大阪支部작품집

## 입버릇

박 태 진

- 사람을 그리워하라  
맥주를 붓고부으며  
늘 외우시던  
선생님의 입버릇

- 사람을 그리워하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짝 찼었다  
선생님자신이 그리움에 넘쳐 그런걸가

선생님 입버릇대로  
그리운 사람 그려보더니  
보고픈 사람 있어  
분명 내 삶이 좋아보였다

## 분회장의 주름살

십 달 야

내 풋내기교원이던 그때도 오늘도  
교원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학생들을 손자처럼 아껴주시는  
학교일은 집안의 일이신  
분회장님

어느새 일흔고개 넘으셨어도  
종신분회장 맡겠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어  
신년모임 장내를  
더욱 들끓게 하신분

소식없이 찾아갔을적에는  
이 먼데까지 잘도 왔다고  
돌아온 아들처럼 맞아주시고  
돌아갈 때엔 축했다며  
역까지 자동차 몰아주신  
분회장님 얼굴에

주름살은 깊어집니다  
나날이 많아집니다

동포동네에 분회장 같은분이 계시기에  
분회는 살아움직이고  
지부가 흥한다는것 모두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나날이 한مام으로 뭉쳐  
시련을 이긴다는것을

주름살에 스민  
분회장의 로고와 공로  
다 알지 못하는 내겐  
훈장처럼 눈부십니다  
웃으실 때 더욱 쾌이는  
주름살이

언제나 건강하시여  
이끌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분회장님  
오래오래 분회장일 맡아주십시오

## 승패 없는 운동회

채 덕 호

승패 없는 운동회를 아십니까  
달리기가 빠른 학생도 느린 학생도  
힘이 꽤 센 학생도 그러지 못하는 학생도  
지금의 자신을  
지금의 우리를 넘어서자고  
온 학교가 하나같이 목표로 향하는 운동회  
난 일룬차 못 탄다고 고개 숙이는 1학년생에게  
함께 연습하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형님  
이젠 달릴수 없다고 단념했을 때  
함께 가자고 따뜻한 손 내밀어주는 누나  
큰 뽕줄속에서 한마음으로 뛰는 학생들  
실수해도 실수해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뽕줄 가지는 손이 아무리 아파도  
함께 넘어서는 하나하나가 좋다고  
역세계 뛰어넘는 학생들 ...  
순위가 없어도 자신이 가지는 힘  
관객들에게 다 보여주는

겨루지 않는 운동회  
그런 운동회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만발하고  
벗나무 꽃잎이 날리는  
기후현의 자그마한 우리 학교에

## 밭길질

리 유 실

엄마가 누우면  
좋아서 차고  
밥 먹으면  
기뻐서 또 차고

목욕을 하면  
신나서 동동동  
그 누가 어루만지면  
지그시 눌러보고

나날이 부푸는 희망인듯  
부른 배 지켜보는 눈길들  
봄소식처럼 기다려지는  
너의 고고성

이역에서 나사자라는  
5 세인 너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련의 벽 둘러싸니

마음껏 차거라  
억세게 들부셔라  
어려움도 두려움도  
다 던고 나가라

아리랑을 자장가 삼아  
자라온 우리 동지들  
벽너머로 기다리는  
행복의 꽃대문으로

저기 목련 꽃망울속  
새하얀 꽃잎들도  
발길질 하나봐  
우리 아가

그렇고보니 옥중에도  
《빌어먹을!》이라는 옥은  
우리 민족이 빌어먹는자를 얼마나 멸시하였는지  
그 인간존엄의 높이를 가늠하게 한다

이제 서는  
다들 조금이라도 빌어먹으려고  
피눈이 되고 란리다  
로력 덜하고 돈 많이 벌면  
능력 좋다고 추켜세우고

우리 조상들의 녀과는 이질화된  
정신세계를 흔히 볼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여,  
우린 손과 발 부지런히 놀려가며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쉽없이 살자

그것이 곧  
조선민족으로  
참되게 사는 과정이려니

《종소리》 시인은 말했다  
일본으로 온  
조선의 축구선수들 보고서  
《조국이 왔다》고

내 바다건너 조국을 그려볼 때  
산천이며 거리  
새로 서는 공장들을  
머리속에 가슴속에  
그려보았거늘...

시인은 이렇게도 말했다  
《조국은 바로 사람》이라고  
선수들은 해외에 나와  
응원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조국을 느꼈을거라고

그렇다면  
내가 언제나 멀리에 두고  
가고파 바라보기만 하던  
그리운 조국은  
이곳에도 내게도 있다는걸일까?!

내 이국에서도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봐도  
조선사람임을 알아볼수 있는  
조선의 숨결로 사는  
《조국》이 되어

언젠가 다시  
조국을 찾을 땐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품》에 안기리  
내 조국을 만나리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학생)

타닥타닥타닥 탁  
깊은 밤 나 홀로 책상과 마주앉아  
손가락을 바빠 움직여  
컴퓨터화면에 글자를 짝 채운다

조금전까진 화음을 이루던 타닥타닥 소리도  
동무들 다 침대로 갔으니  
이제는 서글프게 혼자 운다  
나도 울고싶어, 논문집필이 끝나지 않아  
그러나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  
더 잘하고싶어서

책을 폈더니 펼쳐지는 우리 선대들의 이야기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하려고 투쟁한  
어둠속에서 빛을 찾아나간 이야기

우리가 하는 우리 말은  
선대들의 피땀이 스며든 력사가 새겨진 말이라고

나만 알기는 아까워  
남기신 《흔적》 들 하나하나 소중히 모아서  
이렇게 화면에 글자를 채워간다

탁 탁 탁... 탁  
글자가 흐리멍텅 안 보이게 된다  
어디 한번 눈을 붙여볼까  
잠시 눈 감았다가 떠보니  
화면에 짝 찬 《ㄱ》의 무리  
이제는 안되겠다고 컴퓨터 접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더니  
나의 눈앞에 펼쳐진것은  
선대들이 지켜온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야기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학생)

모교를 찾은 나를  
뜻밖에도 부르는 소리  
되알진 그 소리에 되돌아봤더니  
어여쁜 유치반아이들

그들은

- 선생님, 공놀이 하자요
- 선생님, 밖에서 놀자요
- 선생님, 위생실 따라와주세요

나는 모교를 보고싶어 찾아왔을뿐인데  
아직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꼬마들

선생님을 끝없이 찾던 내가 하던 말이  
내게 되돌아오는 날이 다가오는것일가  
아무런 준비도 안된 나에게

선생님이라 하기엔 아직은 너무도 먼 나에게

내 정다운 모교

이곳에서 웃으며 뛰노는 이들을

내가 돌보고

지켜나가야 하는것이리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학생)

새하얀 목련꽃은  
외롭고 쓸쓸함을 머금은채  
떠나가셨습니다

이듬해 그 자리에  
개나리가 폈습니다

산비탈에 뿌리박은 진달래  
저 산 멀리 벚꽃들이  
화사스레 산소로 잇습니다

흐트러지게 폈다  
흘날리는 꽃보라가  
덧없는 감흥을 일어

올아부지 대물림인양  
제철과 더불어 봄길을 밟습니다

## 괜찮다오

하 의 배

나처럼 늙으면  
젊은이들의 행세가  
쩍하면 거슬리는 법

수십년전 자신이 듣던 말을  
그냥은 벨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느껴보는 일은 그 몇번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어는 가정에서도  
고령자는 젊은것들 눈치보며 살아야 ...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저 룡담같지가 않은 말

아무튼간에 또래여러분,  
새세대들앞에서  
《우리 젊을 때엔 ...》  
《아무렴, 그때만 해도 ...》 하면서

녹슨 자락을 늘어놓기 전에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세나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  
생활의 모든것중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두고있는지  
제대로 알기나 했는지부터

가정을 꾸리면  
선참으로 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아버지만 따로 살아도  
《자식을 우리 학교에 보내려면? !》

차별이 심한 이역살이 헤쳐가는  
굳센 마음 키워주는 단 하나의 배움터로  
4 세, 5 세도 기어이 보내려고  
이사며 단신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무진 애를 쓰는 그들의 속마음  
우린 잘 모르고있었을걸세

어린 자식을 조선학교에 보내려면  
지역의 학교를 목숨처럼 지켜야 하고  
지키려면 시간과 로력과 돈을  
깡그리 다 바치여도 부족한 이관

좀 서운하긴 해도  
우리는 묵묵히  
마음속에서 박수를 쳐주고  
웃으며 성원을 보내주면 될걸세  
도와준다면 그들이 바랄 때에만  
말없이 조용히 통이 크게

요즘애들 괜찮지? !  
안 그런가  
또래야

## 나란히

김애미

유치반체험보육날  
선생님을 마주보고  
나란히 앉아있는  
다섯명의 재원어린이들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노래 부르며  
우리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구나

견학할줄로만 알던 우리 딸  
그들속에 꼭 들어가고싶어  
어느새 재원생들곁에  
딱 붙어앉았네

-난 래일부터 여기 다닐래  
별써 봄은 왔구나  
4 월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유치반원복  
입혀도 되겠네

조선사람으로 살아갈  
뿌리를 심어주는  
사랑어린 교실에  
우리의 꿈과 희망이  
줄을 지었구나

## 3 월 8 일 아침에

김 남

창가에 푸름푸름 새벽동틀제  
책상에 앉아 골똘히 시상을 잡던 습관  
오늘만은 어겼습니다  
오늘은 다름아닌 3.8 절  
나의 안해와 온 나라 녀인들의 명절이니까요

단잠든 안해가 깨일세라  
조심조심 자리일어 부엌에 나섭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가  
그렇지 우선 안해가 하듯  
행주치마부터 둘러야지

류달리도 하얗게 눈부신 앞치마  
어색한대로 허리에 두르노라니  
저도 몰래 눈앞에 어려웁니다  
동자질로 젖은 손  
행주치마에 문대군하던 안해의 모습이

쌀을 일고 찬거리를 다듬고  
끼니를 차리고 설것이를 하고 ...  
여느때 응당한 본분이라  
따로 수고라고 여겨본적 없던 일에  
두손을 적셔보니  
아, 참 크지도 않은 부엌일에  
무슨 할일이 이리도 많습니까

가슴 몽클해집니다  
어느 하루도 젖은 손 마를새없이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말없이 정성을 고여온 안해  
언제한번 힘겨웁다 내색한적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없는 보람인듯  
다정히 웃음짓던  
안해에 대한 이름못할 감사로움

그 젖은 손으로  
딸애를 어엿이 키워  
방선초소에 세우고  
지금은 아들애를 미더웁게 자래우며

내 나라 받들어 일터에서  
더운 땀 바쳐가는  
안해여 그대가 있어  
내 또한 직장일에 몸바치거니

이 새벽 젖은 손 행주치마에 문대며  
마음속에 오히려 몇갑절  
그윽히 젖어오는 사랑을  
아침밥상우에 고투가는 3.8 절 이날은  
다만 우리 사나이들이  
녀인들을 축하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더 열렬히 더 뜨겁게  
우리의 녀인들을 위하고싶은 정이  
샘처럼 솟아오르는 날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이불속에서  
깨어나 내 하는 일 여겨보며  
웃음지을지 모를 안해여

그대위해 이 아침 원고지삼아  
한쪽의 행주치마에 담는

축하의 내 노래를 받아다오  
3.8절을 축하하노라  
그대를 끝없이 사랑하노라

(조선거주)

## 할배와 손녀의 교환 《메일》

허 옥 녀

《할배, 방금 버스 탔어요》

《그래? 정거장에 마중갈거야》

《할배, 달렸는데 버스 가버렸어요》

《그래? 꼼짝 말고 거기 있어라》

한시간에 한대밖에 안 오는 버스  
일년 열두달 휴일말곤 어김없이 오간  
할배와 손녀의 교환 《메일》

친구들은 자전거로 썩썩 달려가지만  
자꾸 넘어져 공포증에 걸린 손녀  
혼자서도 버스타고 가겠다 우겼었지

직장에 다니는 아빠, 엄마대신  
막내손녀의 통학길을 지켜준 할배  
손녀가 돌아와서야 안도의 숨  
호

50 년의 막로동끝에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으로  
서투른 교환메일 하시는 할배

하교시간이 가까와지면  
손전화의 문자만 기다리시는 할배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는 육친의 정

- 래일부터 자전거 타고 갈래요 !  
언제면 그 말 들을가 한숨이  
후유

하지만 할배야 그날이 오면  
기쁘기도 하겠지만  
무척이나 섭섭할걸 !

## 와하하골프소조

김 성 철

동포동네에 웃음을 더 주고싶은 마음  
소박하게 이름에 담았을가  
부를수록 친근한  
와까야마 《와하하골프소조》

골프쟁이도 하나되니 제갈량보다 낫다고  
돈도 지혜도 더 늘어서 좋다고  
소조원도 동포들도 모두 와하하  
귀기울이면 산너머 웃음소리 들려오는듯

선대들 걸어온 길 웃으며 이어갈  
그 결심 어리여선가 생각도 깊어지는 이름  
신보에 실린 소개글은 짧았으나  
내 마음에 오래오래 여운 남긴 소조이름

싱겁기 짝이 없는 이 나라에선  
동포들의 웃음소리 《폭탄》과도 같아  
한숨도 시름도 차별의 무거운 구름까지도

《웃음폭탄》이 속시원히 날려보내지 않으리!

바야흐로 봄철 골프계절

동포동네 화목한 웃음꽃계절

《와하하골프소조》 뒤를 따라

나도 함께 웃어보련다 와하하 와하하

## 래일 향해 꿈 !

김 명 혜

1년 열두달 주마다 두번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꼭꼭 들려오는  
《게이트》 뿔소리 꿈 !

여든고개 넘으신 여라문명 고문님들  
무더위도 이겨내시며  
찬바람도 입김으로 녹이시여  
공을 치며 《게이트》를 척척 넘어가신다

겨늘 자리에 공을 치지 못해 아쉬워하시는  
젊은시절 녀맹위원장 하신 강할머니  
실수해도 단념없이 공을 치시는  
김치장사로 학교지원 해오신 리할머니

런습에 나오시는것도 힘겨울텐데  
오늘도 화요행동에 함께 나서시며  
동포들의 모임마당에는 빠짐없이 나오시는

고문님들의 모습 보는 내 가슴 울렁인다

술한 고생 이겨내며 살아오셨는데  
한 일보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체력을 키워 오늘을 건강히 살고  
래일을 향해 살아가자고 공치기 꿈 !

## 새봄에 바라다

서정인

내 교단에서 맞는  
마흔다섯번째 산들바람 새싹들  
우리 말과 글이라는 자양분으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며  
사철 푸르싱싱 이곳에서 자랐으면



이역땅의 삶을 품어주고 지켜주는  
튼튼한 지붕이 생겨 일흔뚝이 되는 이 봄  
푸르른 한하늘아래  
우리의 말과 노래가락에 맞추어  
흥에 겨운 춤판이 방방곡곡 펼쳐졌으면



자신들의 존엄과 시련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겪으며  
빈 가슴에 꼭꼭 담아서  
고르고고른 우리 말을 색깔으로 삼아  
그러루한 한폭의 《그림》 그려낼수 있었으면



역센 주먹 날려 선포한  
조고부활에 자만함이 없이  
자신을 이기는 땀 흘리고 또 흘려  
전국대회 링그에서도 민족기개 떨쳐  
조카손자 승리로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겼으면



아침일찍 깨어나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는 거친 통학길  
밀치여도 넘어져도 씩씩하게 다니여  
누나들처럼 학교가 보금자리 되도록  
1학년생 손자도 몸과 맘 키웠으면



울울창창 무사시노대지에서  
일흔개째 해돌이 새겨가는 아름답리  
꽃가지에는 잎사귀가 만팔천구백이십삼  
세상이 우러르는 금자탑  
동갑내기 내게도 저런 꽃이 피었으면

## 손녀 꿈, 할배 꿈

리 일 렬

내가 사온 굴 함께 먹으면서  
《익살꾸러기》 손녀가 불쑥 내민 말  
- 할배는 왜 백발이 많아?

돌연히 날린 질문에  
- 오래 교장선생님 일을 해서 그러지  
알아들었는지 어떤지  
- 으응, 그렇구나...  
말끝 맺지 못하던 손녀

그러다 《유치반생일축하모임》 날  
- 애들아, 크거들랑 뭐가 되고싶어?  
보육사선생님 질문에  
- 《파테쉐》(제빵사)!, 《프리큐어》(공주님)!,  
- 축구선수!, 엄마!

뿔내며 가지가지 마음대로 말할 때  
우리 《익살꾸러기》는

빙글빙글 웃으며

- 《교장선생님》 될래요, 할배같은 !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답

영똥하다고 하기보다는

놀람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손녀의 《꿈》

고맙다

그래 이 할배는

네가 교단에 서는 그날을

꿈꾸며 살거야

## 나를 부르는 소리

양금녀

### 《엄마》

이제는 귀에 익은  
부드러운 그 울림  
챙챙하던 목소리  
우렁우렁해졌어도  
아들 셋이 날 부르는  
흔하디흔한 그 소리가  
은근한 내 기쁨  
오롯한 내 행복

### 《선생님》

들을수록 따뜻하고  
새길수록 벅찬 부름  
후더운 사랑에  
뿌듯한 보람에  
몽클한 이 가슴  
천진하고 애뜻하고  
랑랑한 그 울림은  
마치 엄마 찾는 소리

《금녀》

하많은 사람들의  
다정한 부름소리  
삶에 폭 배인  
고마운 내 이름  
이 세상 누구보다  
살뜰하고 정겹게  
많이도 불러준 사람은  
내 《엄마》

## 102 호 후기

노래에 있듯이 새봄을 알리며 《주먹같은 목련꽃이 용기중기 피었》다. 걸음을 멈추고 희디흰 그 모습에 한동안 취했었다가 혼자 보기가 아까워 사진에 담아 여기저기로 꽃보라처럼 날려보냈다.

그랬더니 《이 꽃이 그냥 〈시〉입니다.》라는 말이 되돌아왔다.

… 한번 보면 또 보고싶고 보느라면 시간가는줄 모르고, 티없는 맑음이 보는이들의 가슴에 스며드는 그런 시를 써보라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인)

---

---

# 詩誌 종 소 리

---

発行 《종소리》詩人会  
代表・編集 徐正人 校正 韓誠宇  
e-mail sousakukadai@yahoo.co.jp  
発行日 2025年4月15日 (日本・東京)

## 독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지 《종소리》는 101 호이후 보시는것처럼 이렇게 web 발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종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시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연간 1,000 엔의 캄파모금에 찬동하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리해하시여 협력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바입니다.

송금해주실 口座는 아래와 같습니다.

ゆうちょ銀行 (記号) (番号)

10080 20334451 ソ チャンギョ

※ ゆうちょ銀行이 아닌 다른 金融機關을 통하여 송금해주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指定해주십시오

【店名】〇〇八 (読み ゼロゼロハチ) 【店番】008

【預金種目】普通預金 【口座番号】2033445

102 호